

광주·전남 생활체육 리그 활성화 힘 받는다

생활체육동호회리그대회 공모
광주 9개·전남 12개 종목 선정
국비 지원 받아 종목별 대회 개최
체계적인 동호회리그 육성 기대

광주·전남지역에서 생활체육 리그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4일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체육회는 2020년 생활체육동호회리그대회 공모

사업에서 2개 지역 4개 종목(배드민턴2, 풋살, 테니스) 유소년부 등 9개 부문이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에서도 7개 시·군, 12개 종목이 선정됐다. 공모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했다.
시체육회는 국비 예산 7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최소 90개 팀 동호인들이 평균 6개월여에 걸쳐 지역별 리그전을 개최할 수 있는 재원이다. 생활체육동호회리그대회 사업시행은 남구체육회, 북구체육회에서 주관해 이달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시체육회는 "종목·수준별, 연령, 지역별 실정을 감안한 부문별 리그를 운영할 수 있게돼 체계적인

동호회리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도체육회도 배드민턴, 볼링 등 12개 종목에서 생활체육동호회리그대회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영암군이 골프와 볼링, 족구 등 3개 종목이 선정돼 가장 많은 리그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영암에 이어 목포와 장성이 볼링과 족구에 선정됐고, 화순(볼링, 배드민턴)과 강진(배드민턴), 구례(배드민턴), 영광(볼링)이 생활체육동호회리그대회를 개최해 다세대, 다계층의 전남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참여와 체계적인 리그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동호회리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리그가 정착화되고, 생활체육인들도 엘리트 선수들과 같이 체계적인 리그 참여를 통해 전문화된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시·군에서 다양한 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체육동호회리그대회 공모사업은 전국 시도 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대회 개최지역과 종목을 선정,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체육회는 지난해 다양한 생활체육동호회 리그를 개최 지원했다. 지난해 열린 목포시 생활체육동호회리그 3X3 농구대회(왼쪽)와 광주 서구에서 주관한 탁구 대회.



광주시·전남도체육회 제공

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 승리

황희찬(24)이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재개 첫 경기에서 83분을 소화하며 잘츠부르크의 완승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황희찬은 4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분데스리가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라피드 빈에 2-0으로 이겼다.
황희찬은 선발 출전에 후반 38분까지 83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정규리그 8골 8도움을 기록 중인 황희찬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못했지만, 후반 21분 엘로카드를 한 장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쳐 팀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전반 9분 만에 나온 패스 다카의 선제골로 앞서 나간 잘츠부르크는 후반 46분 노아 오펜호퍼가 왜기 골을 꽂아 넣어 두 점 차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는 지난 3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리그가 중단된 뒤 잘츠부르크가 치른 첫 경기였다.
황희찬으로서는 같은 달 6일 LSKA 린츠와의 오스트리아축구협회(OFB) 컵 준결승(1-0 잘츠부르크 승)에서 입은 허벅지 근육 파열 부상을 완전히 회복한 뒤 가진 첫 경기이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는 국내 K리그처럼 스플릿 라운드 방식으로 치러진다. 12개 팀이 풀리그 22라운드까지 소화한 뒤 상·하위 6개 팀으로 나뉘어 챔피언십 라운드 10경기를 갖는다.
챔피언십 라운드부터는 풀리그에서 획득한 승점의 절반만 인정된다.
챔피언십 라운드 첫 경기를 가쁜 승리로 장식한 잘츠부르크는 승점 27점을 쌓아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황희찬이 4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20 분데스리가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라피드 빈 선수를 제치고 볼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국가대표 라자레바 1순위로 기업은행 낙점

여자배구 비대면 외국인 선수 선발
러시아 국가대표 라이트 안나 라자레바(23)가 2020-2021 한국배구연맹(KOVO)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1순위로 IBK기업은행에 뽑혔다.
기업은행은 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얻었고, 김우재 감독은 주저하지 않고 라자레바를 호명했다.
라자레바는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참가 명단이 확정된 뒤부터 '확실한 1순위 후보'로 꼽혔다.
그리고 예상대로 1순위 지명권을 얻은 기업은행의 선택을 받았다.
라자레바는 2019-2020시즌 프랑스리그에서 뛰며 445점을 올려 득점 2위에 올랐다.
V리그 감독들 모두 "1순위와 2순위의 차도 크다. 라자레바는 공격과 블로킹에서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의 기량을 갖췄다"고 입을 모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수들의 국경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V리그는 '비대면 방식'으로 외국인 선수를 선발했다.
선수를 모아놓고 연습경기를 하는 '트라이아웃'을 치르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각 구단의 정보도 비슷했다.
라자레바를 향한 관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날 지명순위는 기업은행, 인삼공사, 도로공사, GS칼텍스, 현대건설, 흥국생명 순이었다. 인삼공사는 발렌티나 디우프, GS칼텍스는 메레타 리츠와 재계약한 테라 구슬 확률 추첨은 4개 구단에만 영향을 끼쳤다. 지난 시즌 최하위 인삼공사는 5위 기업은행에 순서가 밀려, 라자레바 지명에 실패했다.
이날 새로 선발된 외국인 선수는 16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재계약한 디우프와 리츠의 2020-2021시즌 연봉은 21만 달러다.
/연합뉴스

PGA 선수 맥닐리 "한국어 배우는 중"

PGA 선수 맥닐리 "한국어 배우는 중"
선생님은 골퍼 여친 대니엘 강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라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가 있다.
주인공은 매버릭 맥닐리(25·미국)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최근 맥닐리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 레벨 1의 한국어 교재를 공부하고 있다"는 그의 근황을 소개했다.
맥닐리는 이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는데 그 방법을 하나가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워 더 많이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휴대 전화에 '듀오링고'라는 언어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한국어 알파벳도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한국어 선생님'은 바로 그의 여자 친구이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교포 선수 대니엘 강(28·미국)이다.
맥닐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격리 기간에 대니엘로부터 한국어 교과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책을 선물 받았다"며 "지금은 레벨 1을 공부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메이저 대회에서도 한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는 대니엘 강은 맥닐리에게 "오늘의 단어"를 제시하며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대를 나온 맥닐리는 2017년 아마추어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던 선수로 PGA 투어에서는 올해 2월 AT&T 페블비치 프로와 공동 5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다.
그는 스페인어를 제2외국어로 구사할 수 있다. 그의 부친 스포츠 맥닐리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의 공동 창업자다.
맥닐리는 대니엘 강에 대해 "단순히 지식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연합뉴스

'바둑황제' 조훈현 13일 복귀전 '바둑여제' 최정과의 맞대결

'바둑황제' 조훈현 9단과 '바둑여제' 최정 9단이 맞대결을 펼친다.
제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4년 만에 정계에서 반상으로 돌아온 조훈현의 복귀전인 '화려한 귀환, 돌아온 황제 조훈현' 대국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바둑TV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조훈현은 9살에 입단해 국내 통산 최다 타이틀(160회)과 세계 통산 최다승(1949승) 기록을 보유한 한국 바둑의 전설이다.
국내 기전을 석권하는 전관왕을 3차례(1980년 9관왕-1982년 10관왕-1986년 11관왕) 달성한 조훈현은 1989년 초대 응씨배에서 한국 바둑 최초로 세계대회 정상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세계대회 그랜드슬램(후지쓰배·응씨배·동양증권배 우승)을 이루기도 했다.
조훈현은 2016년 비례대표(당시 새누리당)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한국기원에 휴직계를 내고 잠시 프로기사직을 내려놨다가 임기 후 돌아왔다.
최정은 여자기사 최연소(21세 3개월) 및 최단기간(입단 이후 7년 8개월)에 입선(9단)에 올랐으며, 국내 여자기사 최다 타이틀(17회)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궁룡산병성배·오정원배·천태산배·황동사배 등 메이저 세계 여자 바둑 대회를 휩쓸고 국내 대회인 하림배 프로여자국수전과 한국제지 여자기성전에서도 우승하며 세계 최고의 여자 바둑기사로 입지를 다졌다. 조훈현과 최정은 상대 전적 1승 1패로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침입자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침입자
3관	언더워터, 영웅: 천하의 시작
4관	침입자, 더 플랫폼
5관	침입자
9관	위대한 쇼맨, 프리즌 이스케이프 슈퍼스타 두루
7관	씨네커플, 프랑스여자, 프리즌 이스케이프, 더 플랫폼
8관	씨네커플, 그림,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

기획전시
최대주 感應動通
2020. 5.21.(목) ~ 6.1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 포커스
선우정아 콘서트
2020. 6.14.(일) PM 5: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철기방>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